

# CASAA

LIVING

## DINING&KITCHEN

쿠킹 스튜디오에서 찾은 수납 아이디어  
식품 배달도 프리미엄 시대

## BEAUTY&FASHION

환절기 모발과 두피를 위한 솔루션  
F/W 주목해야 할 백&슈즈

## LIFESTYLE

한입의 행복, 담섬  
아메리칸 쇼트헤어 고양이, 퉁키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아이디어

## Modern French Lombris

건축적 디자인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

티타임을 위한 프렌치 플라워

영원한 클래식

프리츠 한센 시리즈 7'

공유의 시대를 맞이하는 법

도쿄 하우스 비전 2016

쿠션을 활용한 가을 홈 스타일링

한가위, 마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밀라노 바뇨 트렌드 리뷰 & F/W 국내 욕실 신제품

# ULTIMATE BATHROOMS

값 7,500원

ISSN 1228-8993



9 771228 899004

09

# HOME

럭스아르데코 하우스 | 패션 디자이너의 가치 있는 공간 | 갤러리스트의 집 | 프렌치부티크 하우스



가구와 조명으로 꾸민 예술적 공간  
침실 앞 계단 한 모퉁이에 놓은 클래식한  
프렌치 스타일의 암체어는 '더 프렌치  
베드룸 컴퍼니(The French Bedroom  
Company)'. 여기에 구비의 모던한  
거울과 '버스터 앤 펀치(Buster +  
Punch)'의 디자인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오묘한 분위기를 전한다.  
포토그래퍼 레이문(Moon Ray Studio)

남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영국 전통 조지안 하우스의 정문. 카사 보텔로를 상징하는 아르데코 스타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 럭스 아르데코 하우스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니멀한 럭셔리 패션과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완성한 공간이 있다. 런던 동부의 헤크니(Hackney)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는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의 매니징 디렉터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전향한 조양 보텔로의 삶의 공간이자 그의 미학을 표현하는 쇼룸이다.

에디터 인지나  
글과 사진 레이문(Rei Moon, MoonRayStudio.com)  
스타일리스트 니나 콜리(Nina Cooley,  
www.cooleyandrose.co.uk)



조양 보텔로는 패션 디자인과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으로 고향인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경력을 쌓았다. 판매 직원에서 매니저까지 빠르게 성장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패셔너블한 백화점인 하비 니컬스에서 시작된 런던의 삶은 영국 패션 브랜드 니콜 파히(Nicole Farhi), 재스퍼 콘란(Jasper Conran)을 거쳐 2000년,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도나 카란 뉴욕으로 이어졌다. 도나 카란 영국의 매니징 디렉터가 되기까지 약 15년의 시간은 그에게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인생에 변화를 주었다. 올해 2월 그는 공간과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창조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카사 보텔로(Casa Botelho)를 설립했다. 브라질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조양은 올해 본인의 첫 번째 타운하우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얼마 전에는 카사 보텔로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가구 컬렉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테이블 컬렉션 '더 마티니 컬렉션(The Martini Collection)'과 함께 최근 디자인한 '더 다이애나드 링크 트롤리(The Diana Drinks Trolley)', '더 바코 우산 꽃이(The Bacco Umbrella Stand)', '더 바코 페이퍼 빈(The Bacco Paper Bin)'은 이번 가을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기간 중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마치 컷워크를 걷는 듯 길게 뻗은 입구에는 아비가일 아현의 불용 상층리에 아레로 카사 보텔로의 '더 바코 우산 꽃이(The Bacco Umbrella Stand)'와 웨스트 엘름(West Elm)의 내추럴한 스탠드를 배치했다. 벽에 걸린 그림은 조양 보텔로의 고국인 브라질 출신의 아티스트 마누엘 베르상(Manuel Bersan)의 작품.

거실부터 부엌까지 넓게 트인 1층은 카사 보텔로의 미학을 담은 소름 걸 삼의 공간이다. 패션에서부터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조앙 보텔로가 카메라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카사 보텔로가 디자인한 계단과 천장부터 길게 내려온 상들이라가 보인다. 모두 아비가일 아원의 제품.



### 고급스러운 무드로 공간을 채우는 렉스 디자인

10여년 전 런던 동부 해크니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험한 구역 중 하나였다. 당시 조앙은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집을 찾다가 지하를 포함한 4층 높이의 낡고 다소 흉측한 타운하우스 중 2층과 3층이 이어진 플랏을 구입했다. 넓은 공간이 가진 가능성을 본 조앙의 선택이었다. 2층 전체를 부엌 겸 거실로, 3층을 침실로 사용하던 그들에게 2008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경기 침체로 인해 지하와 1층이 매매 시장에 나온 것. 이로써 타운하우스 전체를 구입한 그들은 2014년이 되어서야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해크니 지역은 런던 어느 구역보다도 빠르게 발전했고 지금은 트렌디한 동네 중 한 곳이 되었다. 1년이 조금 넘는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완벽을 추구하는 조앙은 아침저녁으로 진행 사항과 시공 작업을 확인했고, 올해 5월 카사 보텔로의 소름을 담은 럭셔리한 공간으로 바꾸어놓았다.

아르데코의 문양을 연상케 하는 질은 화색 문을 열고 들어서면, 건축의 이성적인 면과 디자인적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럭셔리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1930년대의 벨기에 상들이라로부터 모던 디자인 아이템까지 시대와 스타일을 절충해 균형을 이룬다. 강인하고 남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금속과 황동 소재 가구와 폐미난한 감각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 소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조앙 보텔로는 본인의 디자인 콘셉트를 '매스쿨린 글래머'라 설명했다. 1층의 오픈 플랜 거실과 부엌 공간은 조앙의 사무실 겸 쇼룸으로 사용하는데, 그의 디자인을 대표하는 그레이, 블랙, 화이트를 주된 컬러로 빈티지와 컨템퍼러리 조명을 배치했다. 각각의 공간에 다른 느낌을 주고자 했는데, 얼룩말 마틸다 박제 또한 1층 공간에 흥미로운 매력을 부여한다.

1 톱포드의 미니멀 세시함을 담은 듯한 거실의 한 공간은 블랙 앤 화이트 콘셉트로 꾸몄다. 모던한 나무지 소파 사이로 원형의 카사 보텔로 다이애나 커피 테이블(Diana Coffee Table)을 두어 리드미컬한 형태감을 주고 오우룸 홈(Aurum Home)의 쿠션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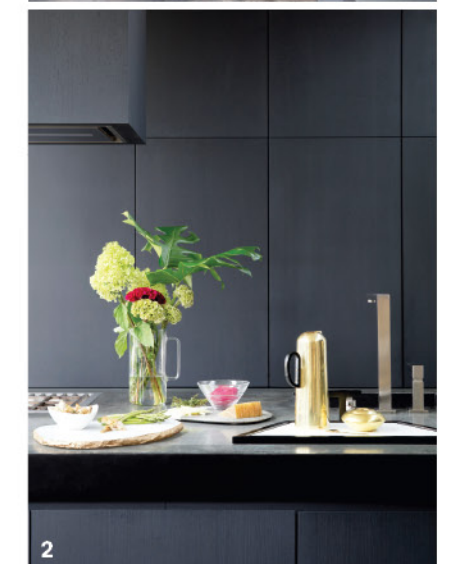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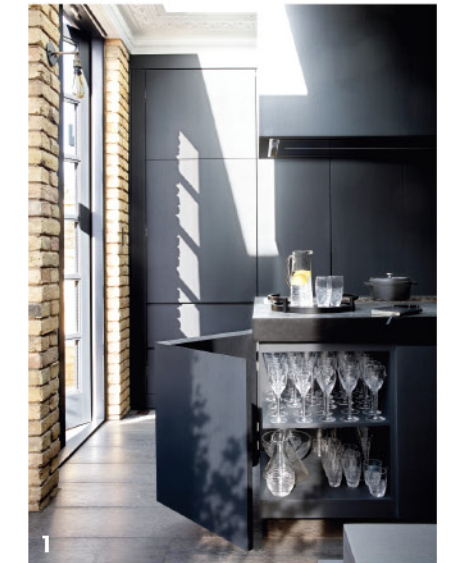
2 거실의 중심에서 바라본 공간은 조앙이 표현했듯 '대칭의 균형(Symmetry)'과 '질서 정연한 배열(Order)'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레이엄 앤 그린(Graham & Green) 소파 중간에 놓은 테이블은 카사 보텔로의 김슨 마티니 테이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집 안에 담고자 한 조양은 박제된 얼룩말 마틸다를 벽면에 장식했다. 본래 정원이었던 거실 한쪽을 연장해 시공한 공간은 조양의 오피스 겸 부엌이 되었다.



1 마치성(Castle)에 온 듯, 가든과 부엌 사이에 천장까지 높은 문을 설치했다. 카사 보텔로가 디자인한 문을 통해 들어온 오후 햇살이 공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준다. 아일랜드의 한쪽은 조양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재스퍼 콘란과 도나 카란의 유리잔으로 채웠다.  
2 모든 물건은 감추는 수납을 해야 한다는 미니멀 디자인을 추구하는 조양이 디자인한 부엌의 수납장과 아일랜드.  
3 매일 아침이면 밀레 주방 가전에 장착된 네스프레소 머신으로 리스트레토 더블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조양은 컵 하나도 본인만의 스타일이 담긴 디자인을 선택했다. 도나 카란의 크림 컬러 에스프레소 컵, 하비 니콜스의 블랙 앤 화이트 컵을 마치 디자인 소품처럼 진열했다.



예술의 영감을 실용적인 디자인에 적용하다

네스프레소의 리스트레토 더블 에스프레소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조양은 디자인만큼 예술에서도 깊은 영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조각, 사진 등의 아트 오브제가 집 안 곳곳을 장식한다. 특히 입구의 복도 벽에 건 브라질 아티스트 마누에우 베르상(Manuel Bersan)의 추상적인 페인팅 컬렉션과 로버트 리 모리스(Robert Lee Morris)와 도나 카란의 브라스 오비탈 조각, 바닥에 놓은 마사 스테디(Martha Sturdy)의 플로어 브라스 오비탈 조각은 조양의 디자인 작업에 끊임없는 영감을 더한다. 디자인과 패션을 향한 그의 열정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알렉산더 맥퀸과 구찌를 다시금 최고의 브랜드로 부활시킨 톰 포드의 미니멀하고 럭셔리한 디자인, 그리고 리스트레토를 즐기는 조지 클루니의 멋스러운 라이프스타일과 닮았다. 현재 꿈에 그리던 부티크 호텔 디자인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조양 보텔로는 브라질인 특유의 유쾌한 열정으로 영국 디자인에 독특한 미를 더하고 있다.



왕실을 연상케 하는 B&B이탈리아의 침대 뒤로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더 프렌치 컴퍼니의 루이 XV 의자를 배치했다. 눈을 사로잡는 티머시 울턴(Timothy Oulton)의 거대한 상들리에 아래로 말프 로렌의 베드 라넬, 아트 하이드(Art Hide)와 피피드 라옹(Fifi de Lyon)의 베게 커버가 활기를 준다. 작은 공간에 활용성을 높여주는 벽면 선반은 카사 보텔로 디자인.



**부티크 호텔을 담은 욕실**

마스터 베드 룸과 전용 욕실을 함께 배치한 2층은 조앙 보텔로가 꿈꾸는 부티크 호텔의 공간을 담았다. 쇼핑을 할 때면 물건의 짝을 이뤄 구입하는 조앙은 거대한 원형 상들리에를 침대와 욕조 위에 설치해 해가 들 때마다 서로 반사되어 오묘하게 발산하는 빛을 즐긴다. 어두운 회색 조의 욕실에 건 데버러 터브빌의 흑백 사진이 전체적인 공간에 로맨틱한 스토리를 전한다.

촬영 협조 조앙 보텔로(joão Botelho, CasaBotelho.com)



1 마스터 베드 룸의 극적인 효과는 전용 욕실로 이어진다. 정제된 디자인과 첼리만 사용한 공간은 카사 보텔로가 디자인한 세면대와 구버의 거울이 모던한 욕실 풍경을 만들어낸다.  
2 블랙엔 화이트로 꾸민 2층에 위치한 게스트 베스 룸은 자라홀의 매트 포인트를 주었다. 그레이엄 그린의 사슴 머리 조각으로 위트를 더하고, 크리스털 형태의 빈티지 거울로 로맨틱한 느낌을 살렸다. 욕조 옆에 놓은 테이블은 카사 보텔로의 베스퍼 마티니 테이블(Vesper Martini Table).